



보도시점 2024. 11. 13.(수) 08:30 배포 2024. 11. 13.(수) 08:30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 김범석 기재부 1차관·김민석 고용부 차관 주재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 “고용률 역대 최고 등 주요 고용지표 양호, 다만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
-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차질없이 마련”

11.13.(수) 08: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고용률·경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22~'23년 중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10월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23.9월 + 30.9만명→10월 + 34.6만명)되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23년 2.4일→'24년 4.1일)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면서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 점차 개선, 기저효과 등 감안 시 11~12월에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한 중에도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등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면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청년올케어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DB)를 구축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을 돕는 일경험 사업, 근속 유도를 위한 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으뜸기업과 같은 지역 내 우수한 구인처를 발굴해 청년 구직자들을 좋은 일자리로 신속히 연결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금융·심리지원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등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15-8531)
		담당자	사무관	송동원 (044-215-8532)
		담당자	사무관	김종완 (044-215-853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사무관	이상혁 (044-202-7292)

